

Journal of Military History
2024, No. 133, pp.451-465
<https://doi.org/10.29212/mh.2024..133.451>
Printed in the Republic of Korea

[자료소개] 군사역사 연구의 디딤돌, 군사사료 기증

- 2024년 강재원 기증자의 기증사료 소개 -

김경록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선임연구원

1. 2024년 강재원 기증자의 기증 군사사료

군사역사의 연구는 전적으로 군사사료에 기반한다. 군사편찬연구소의 군사사료 수집은 다방면으로 오랜 기간 진행되어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무엇보다 군사역사에 관심이 많은 일반인의 참여와 호응은 군사역사 연구의 든든한 기반이 된다. 특히, 군사사료의 기증은 군사역사 연구의 디딤돌이며, 군사편찬연구소의 자료수집 계획 및 연구과제 수행에 큰 영향을 준다.

미술을 전공하고 오랫동안 교육계에 몸담았던 강재원 선생의 군사사료 기증은 뜻깊은 행운이다. 강재원 선생은 충북대에서 미술을 전공하고 전문 작가로 활동하시며, 충북지역 고교 등지에서 미술교사로 정년하신 미술작가이자 교육자이다. 미술작업과 교육현장에서 접하는 고문헌에 대한 관심으로 다양한 사료를 수

집한 수집가이기도 하다. 그 동안 수집한 사료를 분야별로 구분하고 전문 연구기관과 박물관에 기증하여 자신이 수집한 사료의 소장, 보관, 전시, 연구에 발전을 도모하기도 했다. 2024년 군사편찬연구소에 연락을 주어 군사사료의 기증 의사를 밝혀주었다. 군사편찬연구소는 군사사료 기증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달하고, 관련 절차를 설명드리고 진행했다.

11월 6일, 장재원 선생은 군사편찬연구소 오성대 소장에게 군사사료 6점을 기증했다. 기증식에서 오성대 소장은 기증자의 뜻깊은 기증에 감사를 표하고, 국내 최고의 군사역사 연구기관으로 기증사료를 소장, 보관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하고, 향후 군사역사 연구에 적극 활용할 것을 말했다.

이번에 군사편찬연구소에 기증된 군사사료는 『항의신편(抗義新編)』 1권, 『소화십삼년약력(昭和十三年略曆)』 1권, 『세기가하라군기대전(關ヶ原軍記大全)』 1권, 『어포고왕래(御布告往來)』 1권, 『비서삼종(祕書三種)』 1권, 『독립선언서(獨立宣言書) 부민족선언서(附民族宣言書)』 1권 총 6점이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장재원 선생 기증 군사사료

사료명	저자	발간시기	책수, 규격
『항의신편(抗義新編)』	안방준 (安邦俊)	1863년 (철종14)	木板本(重刊), 乾편(전체 2책) 21.7×14.6cm, 10行20字
『소화십삼년약력 (昭和十三年略曆)』	조선총독부	1938년 (昭和13)	1책 부록수록
『세기가하라군기대전 (關ヶ原軍記大全)』	伊藤政雄	1813년 (文化10)	1책, 필사본 권28(전체 32권), 27cm×20cm
『어포고왕래 (御布告往來)』	沖志樓主人	1872년 (明治5)	1책, 인쇄본 전편(후편 결), 35p
『비서삼종 (祕書三種)』		1924년	1책, 67p 21 cm
『독립선언서(獨立宣言書) 부민족선언서(附民族宣言書)』		단기4288 1955년	1책, 韓國文化社발행 27cm

『항의신편(抗義新編)』은 4권 2책 가운데 1책만 소장하여 기증했다. 의병장 조헌의 의병실기이며, 초간본은 1625년(인조 3) 발행, 반포되었지만, 철종대 중간되었다. 안방준의 『은봉전서』에 해당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소화십삼년략력(昭和十三年略曆)』은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에서 식민통치를 위해 편찬한 역서이다.

『세기가하라군기대전(關ヶ原軍記大全)』은 세키가하라전투를 소재로 한 일본 근대개항기 실록체 역사소설이며 기증된 사료는 1책 결본이다. 『어포고왕래(御布告往來)』는 천황의 포고문을 모은 것으로 “동몽필독유신(童蒙必讀維新)”이란 속지처럼 모든 일본인에게 강조된 일본의 국가지향을 반영한 포고문이다.

『비서삼종(祕書三種)』은 조선시대 사대부들이 많이 소장하고 활용했던 병서이자 역학서이다. 수록된 비서(祕書)는 장상영(張商英)이 주석한 「황석공소서(黃石公素書)」, 제갈량이 지었다고 전하는 「제갈량심서(諸葛亮心書)」, 서대춘(徐大椿)과 장량(張良)이 공동으로 주석하였다고 알려진 「황제음부경(黃帝陰符經)」이 합각(合刻)되어 있다. 『독립선언서(獨立宣言書) 부민족선언서(附民族宣言書)』은 6·25전쟁기 3·1정신을 바탕으로 국난을 극복하자는 의도로 「3·1독립선언서」와 「민족선언서」를 출판한 것이다.

2. 전쟁경험과 기억의 전승

조헌의 도학정신과 의병활동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는 말이 있다. 그만큼 전쟁이 인류의 삶과 역사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의미이다. 전쟁을 경험한 인류는 새로운 전쟁에 대비하기 위해 전쟁사를 세밀하게

다루었다. 조선시대 최대의 국제전쟁이었던 임진왜란은 조선, 명, 일본, 여진의 역사를 바꾸는 역사사건이었다. 조선은 임진왜란 이후 전후복구와 전쟁경험, 기억을 어떻게 전승하여 전쟁을 대비할 것인가를 고민했다. 이를 잘 보여주는 군사사료가 2024년 군사편찬연구소에 기증되었다.

본 자료소개는 장재원선생의 기증사료 가운데 가장 군사사료의 성격이 높은 『항의신편』을 중심으로 구성한다. 먼저 『항의신편』의 대상 인물이었던 조현을 살펴본다. 조현(趙憲)은 조선 중기의 대표적인 문신으로, 학자이자 경제사상가, 의병장이었다. 조현의 본관은 배천(白川), 자는 여식(汝式), 호는 중봉(重峯), 후율(後栗), 도원(陶原), 시호는 문렬(文烈)이다. 경기도 김포에서 태어난 조현은 어려 학문에 자질이 뛰어났다. 1565년(명종 20) 성균관에 입학하고, 1567년(명종 22년)에는 문과에 급제하여 성균관 교서관에서 관직생활을 시작했다. 평안도 정주(定州)향교 교수, 경기도 파주향교 교수를 역임하며 성혼으로부터 학문을 배우고자 했지만, 성혼의 사양으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1572년(선조 5년) 홍문관 정자(正字)로 왕실의 불교에 대한 정책을 비판했으며, 1574년(선조 7) 성절사 박희립(朴希立)의 질정관(質正官)으로 서장관(書狀官) 허봉(許篈) 등과 함께 명에 사행하였다. 사행 이후 명의 문물과 제도를 비판적으로 수용할 것을 주장하는 『동환봉사(東還封事)』를 국왕에게 제출했다. 조현은 국방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공·사노비를 양민으로 삼아 징병하면 정예 군사력을 양성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1575년(선조 8)에 사직하며 정치 분야에 진덕수(眞德秀)의 『정경(政經)』과 『지시당고(止止堂稿)』, 군사 분야에 척계광의 문집, 교화 분야에 『동몽수지(童蒙須知)』 등을 간행하여 널리 보급할 것을 건의했다. 조현은 절의를 강조하여 사육신의 정문(旌門)을 세워 표창할

것을 주장했다. 율곡 이이, 우계 성혼을 변호하였다가 정치적 곤란을 겪었다. 정여립의 폐단을 논쟁하였다가 탄핵받았다. 조헌은 충실한 성리학자로 유학적 입장에서 조선의 시대문제에 대해 개혁안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1년 전에 게이데쓰 겐소(景轍玄蘇) 등 일본사신이 와서 정명을 주장하자 겐소를 죽일 것을 주장하고, 향촌사회에서 전쟁에 대비하고 방어책을 상소했다.

임진왜란이 발발하자 호남의 고경명, 김천일, 영남의 곽재우, 정인홍 등과 함께 옥천에서 의병을 창의(倡義)하여 호서에서 첫 의병을 일으켰다. 승장(僧將) 영규와 함께 전략적 요충지였던 청주성 수복전투에서 일본군을 크게 무찔렀다. 금산에서 복진하는 일본군과 결전하여 700명의 의병과 함께 전사했다. 조헌은 1604년(선조 37) 선무원종공신1등(宣武原從功臣一等)에 책록되고 이조판서로 추증되고, 1609년(광해군 1), 조헌의 위패를 모신 옥천의 사당에 “표충(表忠)”이라는 편액이 하사되어 이후 표충사(表忠祠)로 불렸으며, 1754년(영조 30), 영의정으로 가증(加贈)되고, 1883년(고종 20), 성균관 문묘(文廟)에 종사되는 등 지속적으로 기억과 전승이란 관점에서 이어졌다는 특징이 있다. 고종대 문묘에 종사되어 해동 18현 중 한 명이다.

조헌의 의병창의와 청주성 수복전투는 임진왜란 초기 전황에 큰 영향을 주었다. 평소 조헌을 존경하던 안방준(安邦俊)은 전쟁 이후 비록 함께 전투하지 못했지만, 조헌의 각종 사실을 모아 『항의신편(抗義新編)』을 편찬했다. 『항의신편』의 저자 안방준은 조선중기 의병장이자 성리학자로 이름이 높다. 안방준은 본관이 죽산(竹山), 자는 사언(士彦), 호는 은봉(隱峯)·우산(牛山)·빙호자(氷壺子)·우산병복(牛山病覆)·은봉암(隱峰菴)·매환옹(買還翁)·대우암(大愚庵)·왈천거사(曰川居士)이며, 시호는 문강(文康)

이다. 학문적으로 우계(牛溪) 성혼(成渾)의 문인이다.

안방준은 임진왜란 때 호남의병으로, 정묘호란과 병자호란에
는 호남의병장으로 활동하였다. 임진왜란이 끝나자 조정에서 관
직을 하사했지만 정치갈등을 이유로 사양하고 후학 양성에 매진
했다. 정묘호란과 병자호란이 일어나자 의병을 이끌고 청군과
싸운 공로로 효종의 부름을 받았지만 사양하다 출사하여 공조참
의의 벼슬을 하였다. 안방준은 1657년(효종 8) 가선대부 이조참
판, 1813년(순조 13) 자헌대부 이조판서에 추증되고, 1821년(순
조 21) 문강(文康)이라는 시호를 받았다. 특히, 안방준은 임진왜
란의 의병활약을 정리해야 한다는 신념에서 『항의신편(抗義新編)』,
『이대원전(李大源傳)』, 『호남의병록(湖南義兵錄)』 등을 저술했다.
안방준의 방대한 저술활동 결과는 『우산수필(牛山隨筆)』, 『은봉
수필(隱峰隨筆)』, 『매환필기(買還筆記)』 등 문집으로 간행되었다.
1773년에 5책의 『우산집(牛山集)』으로, 1864년 20책의 『은봉전
서(隱峰全書)』로 중간되었다.

1573년(선조 6) 보성에서 태어난 안방준은 이황(李滉)의 제자
박광전(朴光前), 고경명(高敬命)의 제자 박종정(朴宗挺) 등에게
학문을 배우고, 성혼(成渾)의 문하에서 학문에 정진했다. 임진왜
란에 박광전·임계영(任啓英) 의병 막하에서 종사관 정사제(鄭思
悌)와 참모로 활동하며 제2차 진주성 전투를 기록한 『진주서사
(晉州敍事)』를 집필했다. 1613년(광해군 5)에 41세의 안방준은
조헌(趙憲)의 『항의신편(抗義新編)』을 편찬했다. 이후 광해군대
정치혼란을 피해 낙향하여 후학을 양성하며 1616년(광해군 8)
『호남의록(湖南義錄)』을 집필했다. 안방준의 조헌에 대한 존경은
1622년(광해군 14) 조헌(趙憲)의 「동환봉사(東還封事)」를 편찬하
여 간행한 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안방준은 지기(志氣)와 절의
를 숭상하여 포은 정몽주(鄭夢周)와 조헌을 가장 숭배하였다. 안

방준의 이런 생각은 포은의 ‘은’과 증봉의 ‘봉’, 각각 한자를 따서 자기의 호를 은봉이라 지은 점에서 거듭 확인된다.

안방준은 종군실기(從軍實記)로 유명한 『은봉야사별록(隱峯野史別錄)』의 저자이다. 물론 안방준이 직접 전투에 참가하여 전황을 서술한 것은 아니다. 일례로 『은봉야사별록』의 「노량기사(노량기사)」와 「진주서사(진주서사)」는 노량해전, 진주성전투를 다루며 서사적 긴밀성이 돋보이는 주목할 만한 작품이다. 일반적으로 실기문학은 역사적 사실, 사건, 인물 등 소재를 작가 체험의 추이에 따라 기록하여 소재가 일회적이며, 작품의 시작과 끝이 작가의 체험이 종결되는 시점에서 끝을 맺는 진술의 한시성이 있다. 그러나 「노량기사」와 「진주서사」는 안방준이 생각한 일정한 구도 속에서 논리적 짜임새에 의해 서술되었다. 즉, 안방준은 실제 종군하지 않았더라도 종군실기를 적은 능력있는 작가라 할 것이다.

『항의신편』은 1614년(광해군 6)에 안방준에 의해 4권 2책으로 편찬되었다. 책머리에 권말에 서문을 통해 확인하면, 안방준은 『항의신편』을 편찬할 처음에 ‘진시무(陳時務)’, ‘구사우(救師友)’, ‘논조정(論朝政)’, ‘청절왜(請絕倭)’, ‘거의병(舉義兵)’, ‘잡저(雜著)’ 등 전집 6권을 목표로 했지만, 청절왜·거의병에 관련한 봉사(封事), 비문(碑文), 언행을 발췌하여 편찬했다. 이 책은 처음 광해군 6(1614)년에 완성하여 4권 2책으로 간행되었다 한다. 『항의신편』은 1625년(인조 3) 연평부원군 이귀(李貴)가 사기진작을 위해 출판을 건의하였지만 국왕의 허락을 받지 못했다. 이후 1863년(철종 4) 송내희의 중간후(重刊後)와 송근수의 발문이 실려 있는 중간본이 간행되었다. 이는 한국은행에 소장되어 있다. 중간본은 전 6권으로 권1-3, 권4-6이 각각 1책이다. 권6이 끝난 뒤에 송시열이 지은 「김의사전(金義士傳)」, 김낙현(金洛鉉)이 지은 「노

수암신도비명(盧守菴神道碑銘)과 「노체헌묘표(盧軒墓表)」, 「삼송당기(三松堂記)」, 「김의사희철사적(金義士希哲事蹟)」 등이 부록으로 엮어 놓았다. 중간본은 초간본에 없던 추가내용과 결판을 보충하여 목활자판으로 조판·간행되었다. 구체적인 구성은 다음 표와 같다.

권	내용
권수	이정구(李廷龜)와 안방준의 서문(序文)이 있고, 조헌의 행적을 나타낸 그림(圖)으로 화가 이징(李澄)이 그린 「궁경양친도(躬耕養親圖)」, 「빈례사노도(賓禮師奴圖)」, 「지부복괘도(持斧伏闕圖)」, 「도보과령도(徒步過嶺圖)」, 「청참왜사도(淸參倭使圖)」, 「청주파적도(淸州破賊圖)」, 「금산사절도(錦山死節圖)」, 「칠백의총도(七百義塚圖)」가 실려 있다.
권1(請絶倭)	청절왜사봉사(淸絶倭使封事) 3건은 1587년 일본의 국사(國使) 다치바나 야스히로(橘康廣)와 1589년 일본 국사 겐소(玄蘇) 등이 외교 교섭을 위해 조선을 방문하자 조헌은 교린과 일본의 정세를 이유로 거절할 것을 요구했다.
권2(請絶倭)	청참왜사 제1봉사(封事), 첩황(貼黃), 제2봉사, 별지(別紙), 의주변황조표(擬奏變皇朝表), 의어유구왕국서(擬與琉球國王書), 의유일본유민부노등서(擬諭日本國遺民父老等書), 의유대마도유민부노등서(擬諭對馬島遺民父老等書), 의참적사현소등죄목(擬斬賊使玄蘇等罪目), 영호남비와지책(嶺湖南備倭之策), 여연안부사신공격서(與延安府使申公格書), 여금산군수김공현성서(與錦山郡守金公玄成書), 여형조판사이공증서(與刑曹判書李公增書) 등이 수록되어 있다.
卷3(擧義兵)	기병후봉사(起兵後封事), 청주파적후장계별지(淸州破賊後狀啓別紙), 근왕시지로문(勤王時指路文), 여수군절도사서(與水軍節度使書), 답고산현감서(答高山縣監書), 여관찰사서(與巡察使書) 등이 수록되어 있다.
권4(附錄)	윤근수(尹根壽)가 찬한 조참판일군순의비(趙參判一軍殉義碑), 안방준이 찬한 중봉선생유사(重峯先生遺事), 중봉선생봉사후발(重峯先生封事後跋), 서중봉선생거의시사후(書重峯先生攀義時事後), 제문(祭文) 6수 등이 수록되어 있다.
권5	권5는 김상헌의 신도비명, 묘표, 증영의정묘표, 사제문, 치제문, 반교문(頒敎文), 교서 등이 수록되어 있다.
권6	편집에 참여한 막좌문생(幕佐門生)의 명단이 들어있다.

* 출처 : 『항의신편』(奎1536)

『항의신편』에 수록된 글은 대부분 『중봉집(重峯集)』에 실려 있으며 또 안방준의 문집인 『은봉전서(隱峯全書)』에 「항의신편」이란 본서와 같은 제명(題名)이 실려 있다.

『항의신편』의 내용은 권1의 「청참왜사제일봉사」, 「영호남비왜지책」 등은 1591년 통신사 황윤길(黃允吉)과 김성일(金誠一)이 함께 온 일본사신을 참하라고 요구하고, 일본의 침입에 대비한 국방정책을 강구한 내용이다. 권6의 막좌문생은 조완기(趙完基) 등 조현 막하의 문하생에 대한 간략한 전기이다. 의병에 참여한 문하생들을 언급하여 조현의 창의정신을 공감하는 인물이 많았으며, 순국하는 순간까지 함께 한 절의를 강조하고자 했다.

이런 점에서 16세기 말 국제전쟁 임진왜란에 대한 조선의 인식과 전쟁 기억을 작가의 관점에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편찬한 『항의신편』은 가장 주목되는 종군실기의 하나라 할 것이다. 『항의신편』은 조현의 도학(道學)정신이 잘 표현된 군사사료이다.

6·25전쟁기 3·1정신으로 전쟁을 극복하다.

한국은 6·25전쟁이 한참 고지전으로 이어지던 1952년 3월 1일, 3·1운동 기념일을 맞이하여 「민족선언서」를 선포하였다. 이는 1952년 3월 1일 대한민국 정부에서 3·1정신을 계승하고, 민족정기를 다시 진흥함으로써 남북통일을 맹서하고, 이를 실천완수하기 위하여 민족선언을 선포한 것이다. 일제강점기 3·1정신으로 일본군국주의를 물리치고 광복을 맞이했지만, 삼팔선이란 국토양단과 6·25전쟁으로 민족이 시름하는 시점에 3·1정신으로 국난을 극복하자는 민족선언이었다. 현재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 소장된 『민족선언서』를 살펴보면, 단기 4,285년(1952) 3월 1일, 대한민국 정부 명의로 발표된 민족선언서는 좌측 가장자리에 ‘우리의 맹서’¹⁾ 3가지가 인쇄되어 있다.

1) 우리의 맹서는 다음과 같다. 1. 우리는 죽음으로써 나라를 지키자. 2. 우리는 단결하여 공산침략자를 쳐부수자. 3. 우리는 백두산 영봉에 태극기를 날리고 남북통일을 완수하자.

6·25전쟁이 휴전에 들어간 뒤 독립선언서를 출판하는 경향이 있었다. 『독립선언서(獨立宣言書) 부민족선언서(附民族宣言書)』는 전체 15장으로 구성된 독립선언서 인쇄본이다. 사료의 크기는 19×26cm이다. 현재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등지에 동일한 사료가 소장되어 있다.²⁾ 1954년 한국문화사와 민족시보사 등 출판사가 28쪽 분량의 하드커버 독립선언서를 출판했는데, 민족선언서를 부록하고, 민족대표 33인의 사진자료를 수록했다. 1955년 맥구문화사(麥丘文化社)에서 17장 분량의 하드커버로 출판한 독립선언서이며, 민족선언서가 부록되어 있다. 이번에 군사편찬연구소에 기증된 사료는 1955년 한국문화사에서 재발행한 『독립선언서 부민족선언서』이다. 출판사항으로 단기 4288년 1955년으로 기재되어 있고, 1책이다.

해방 이후 6·25전쟁을 경험한 한국사회에서 독립운동의 절정이었던 3·1운동의 독립선언서를 출판하여 시대위기를 극복하고자 하였다. 이때 출판에 「민족선언서」를 부록하여 전후 국난극복 지향점을 제시하였다.

3. 군사사 연구의 기반은 군사사료의 수집과 소장

현재 군사편찬연구소 사료실에 전사편찬실 시기에 수집한 사료 및 자료가 소장되어 있다. 물론 이들 사료에 대한 정확한 소장현황 조사 및 등록절차가 진행 중이며, 이들 사료정리 작업을 통해 향후 전문연구자 및 일반인의 군사사 관련 관심을 제고하고 연구작업에 활용되도록 준비하고 있다.

2) 『독립선언서(獨立宣言書) 부민족선언서(附民族宣言書)』(구2633).

군사사료는 사료소장 및 분류기준을 면밀하게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일례로, 한국 군사사료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고문헌(해방 이전), 귀중본(고문헌 중 귀중사료), 중요사료(해방 이후 사료 가운데 귀중사료) 등이다.

순번	서명	저자	시기	서지사항	비고
1	관안(官案)	미상	미상	1책, 손상된 부분 많은	조선후기 관직 및 관원편람
2	병장도설 (兵將圖說)	세조	광무 연간	1책, 인쇄본	세조대의 병장도설을 재간행
3	병장설 (兵將說)	세조	1950년대 이후	1책, 이형석의 필사본	세조의 군사교훈집
4	연기신편 (演機新篇)	안명로 (安命老)	미상	3책, 판본 비교 필요	조선 현종대 안명로가 역대 병서에서 요점을 정리한 병서
5	삼략 (三略)	태공망 (太公望)	미상	1책	동양의 고전병서 『삼략』
6	동국전란사 (東國戰亂史)	강효석 (姜毅錫)	1928년	1책	1928년 강효석이 편찬한 한국 군사문헌
7	병학지남 (兵學指南)	미상	미상	1책, 판본대조 필요	명대 척계광의 『기효신서』를 바탕으로 조선후기에 요약정리한 병서
8	병학지남 (兵學指南)	미상	미상	3책, 3책 중 2책은 언해본	명대 척계광의 『기효신서』를 바탕으로 조선후기에 요약정리한 병서
9	백전기법 (百戰奇法)	황필수 (黃必秀)	대한 제국기	1책(유일본), 원래 10권 2책 중 1책	章漢이 편찬한 叢書 『圖書編』에 수록된 「백전기법」을 별도로 간행
10	동국병감 (東國兵鑑)	미상	미상	1책(卷下, 유일본), 원래 2권 2책 중 1책으로 訓讀이 副題로 기재됨	조선 문종대 편찬된 戰史로 조선 시대 여러 판본 간행, 1911년 조선광문회에서 합본으로 간행
11	육도직해 (六韜直解)	미상	1900년대 초	1책, 판본대조 필요	동양 고전병서인 육도병서를 현토 출판. 1918년, 1920년 등 현토 출판
12	무비지 (武備志)	모원의 (茅元儀)	미상	1책(유일본), 원래 240권	명대 모원의의 『무비지』
13	민보집설 (民堡輯說)	신헌 (申櫟)	1867년	1책, 목판본	조선 고종대 신헌이 지은 향촌 방어책
14	황석공유서 (黃石公遺書)	황석공 (黃石公)	미상	1책, 목판본	동양 고전병서인 황석공병서

순번	서명	저자	시기	서지사항	비고
15	태공육도 (太公六韜)	태공망 (太公望)	미상	1책, 목판본	동양 고전병서인 육도병서
16	사문유취 (事文類聚)	祝穆 (복송)	19~20 세기 초	약 70여 권, 미분류	北宋의 祝穆이 편찬한 類書. 前集(60권), 後集(50권), 續集(28권), 別集(32권).
17	늘재집 (訥齋集)	양성지 (梁誠之)	미상	1책(유일본), 판본대조 필요	양성지의 문집. 정조대 초간본, 1938년 증보 간행
18	조선사략 (朝鮮史略)	미상	1895~ 1923년	1책, 인쇄본, 내용검토 및 판본대조 필요	1923년 김종한이 편찬한 한국사 1895년 개화교육운동의 일환으로 편찬된 교과서
19	조선사기 (朝鮮史記)	윤대의 (尹大義)	1940년대	1책, 광무3년 (표제 뒷면)	한국역사서
20	경서유초 (經書類抄)	미상	미상	2책(권3, 8), 판본 비교 필요	동양경전에서 중요어구를 선정하여 항목별로 분류한 유서
21	읍사례 (邑事例)	미상	미상	1책	조선시대 읍의 주요 현황을 항목별 로 정리한 사례집
22	주려선집 (珠淵選集)	高宗 御撰	1919년	1책, 판본 비교 필요	고종의 시문집
23	이야류초 (俚野類抄)	미상	미상	1책	민간의 각종 이야기, 문체 등을 분 류하여 정리한 책자
24	택리지 (擇里志)	이중환 (李重煥)	미상	1책(유일본)	조선광무회에서 발간한 이중환의 『택리지』
25	삼국사기 (三國史記)	김부식 (金富軾)	미상	9책, 영인본, 책수 확인 필요	김부식의 『삼국사기』
26	동국사략 (東國史略)	권근 등	미상	1책	조선전기 권근 등의 『동국사략』을 후대에 간행한 책자
27	편장군유적 (片將軍遺蹟)	편갈송장 군기념회	1900년대 후반	1책, 필사본, 복사본 혼합	임진왜란기 참전한 명군장수 편갈 송(片曷頌)의 유적을 정리한 문건
28	육군법률 (陸軍法律)	원수부 (元帥府)	1897년 이후	1책	한국 근대 군형법의 제정과정 및 내용을 보여주는 군법울서
29	한국동란 전란지	전사 편찬회	1951~53	6책, 초간본	6·25전쟁기 국방부 정훈국 전사 편찬회에서 간행한 전란지
30	명치37·38년 일러전사 (明治37~38 年日露戰史)	참모본부	1904~ 1905년	책수 확인 필요, 전체 20책 가운데 일부분	일본 참모본부에서 작성한 러일전 쟁사
31	북관대첩비 탁본			족자형태, 이력 확인 필요	임진왜란기 정문부의 북관대첩을 기리는 북관대첩비의 탁본

6·25전쟁이 한참 치열하게 전개될 때, 국군은 6·25전쟁사와 군사역사를 기록했다. 이 연원에서 시작된 군사편찬연구소는 군사역사 연구와 편찬을 위해 군사사료를 수집해 왔다. 한국 역대 군사사료 뿐만 아니라 근현대 군사사료, 국외 군사사료를 수집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경주했다. 군사편찬연구소는 그동안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관계를 맺고 군사사료의 수집체계를 개선하고자 노력했다. 국가기록원, 국사편찬위원회, 각 도서관, 박물관 등과 협업관계를 맺고 매년 정기적으로 자료수집 회의를 통해 군사사료 수집을 활성화하고자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수집, 소장된 군사사료는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군사편찬연구소는 전문군사역사 연구기관으로 중장기적인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무엇보다 군사사료의 현황과 소장상황을 파악해야 한다. 국내와 국외 소재 군사사료 현황을 조사해야 한다. 군사사료 현황에 있어 소장상황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개인과 기관소장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기관소장의 경우는 목록을 통해 파악할 수 있지만, 개인소장의 경우는 실질적으로 현황 파악이 어렵다. 이를 파악하고자 군사편찬연구소는 지속적으로 학술지 『군사』의 매호마다 군사사료 수집 및 기증에 관련한 안내문을 공지하였다. 기관소장은 기관업무협조를 통해 사료를 임대, 교환, 대여, 복사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해당 군사사료를 수집할 수 있다. 개인소장의 경우는 전적으로 소장자의 관심과 의지에 따라 군사편찬연구소가 이를 파악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2024년 장재원선생의 군사사료 기증은 의미가 크다.

개인소장 군사사료의 기증은 개인 소장자의 오랜 기간 사료에 대한 관심과 노력으로 수집, 소장한 사료를 전문 연구기관에 기증하여 체계적으로 소장·보관하고, 전문 연구자의 연구에 활용

되는 것이다. 사료에 대한 깊은 애정으로 수집한 노력을 보다 효율적으로 보존한다는 점과 전문 연구자의 세밀한 연구를 통해 많은 군사역사에 관심을 가진 분들에게 연구성과와 함께 제공된다는 점에서 필수적인 과정이다. 군사편찬연구소는 이러한 군사사료 기증을 확대하고자 기증예우를 체계화하였다.

군사사료를 기증하고자 하는 의사를 표명하면 전문 연구자가 직접 1차 방문하여 군사사료에 대한 전문분석 및 검토와 사료이력을 확인하여 소장자에게 사료의 역사적 의미와 내용을 상세히 설명드린다. 군사사료의 기증에 대한 절차와 예우를 더불어 설명드리고 구체적인 기증절차에 들어간다. 기증대상이 되는 군사사료의 보존과 소장을 위한 절차에 따라 군사편찬연구소는 사료 보존 공간 및 소장목록에 해당 사료의 첨가 작업을 진행한다. 2차 방문을 통해 기증대상 군사사료의 인수, 인계서류를 작성하고, 군사편찬연구소는 해당 사료를 인도받아 사료를 사료보관실에 입고한다. 군사사료 기증일을 선정하고, 해당 일자에 기증자와 군사편찬연구소 소장이 상호 정식 기증식을 거행하고, 관련 사항을 대대적으로 홍보하여 기증의 의미를 밝힌다. 기증 이후 군사편찬연구소는 해당 군사사료를 PDF로 작성하여 기증자에게 보내드리고, 기증사료가 많고 학술적 가치가 높은 경우는 별도의 기증사료자료집 내지 도록을 작성한다. 일반적인 사료의 경우는 기증사료에 대한 상세한 전문해제를 작성한다. 기증된 사료는 군사편찬연구소에서 주관하는 각종 학술회의 및 연구과제에 적극 활용되어 많은 연구자 및 일반 시민에게 그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알리는 계기가 된다.

군사편찬연구소는 국내 최고의 군사역사 연구기관으로 고대부터 현대까지 군사사 전반에 관련한 연구작업을 통해 군사사학계의 학술적 기여도를 제고하고, 군사사에 관심이 높은 일반 시민

들에게 최신 연구성과를 제공하고 있다. 군사역사 연구의 기반은 군사사료의 수집에 있다. 사료가 없는 역사는 불가능하다. 군사사료의 특성상 기관소장이 아니면 구체적인 소장현황을 파악하기 어렵다. 군사사료의 기증은 군사역사 연구의 디딤돌이다. 군사편찬연구소는 향후 보다 많은 소중한 군사사료를 수집, 보존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이에 관련 군사사료 소장자의 관심과 연락을 기대한다.

영문제목 : Donation of military materials is a stepping stone
for military history research.

영문저자명 : Kim, Kyeong-Lok

